

금감원 "보험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 등 계약유지 방안 살펴봐야"

온다예 기자 | 승인 2023.01.03 12:03

(서울=연합뉴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선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 등 계약을 유지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금감원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기준 3조원에서 8월 4조1천억원, 10월 6조원으로 증가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힘들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비 등이 차감돼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보험회사·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이 다르고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유니버설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대출 심사절차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하는 자동대출납입이나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매월 보험료가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자동 납입되는 제도인데,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장금액을 줄여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는 감액완납은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줄 수 있어 보장금액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만 3년 이내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다.

dy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온다예 기자 dyon@yna.co.kr

저작권자 © 연합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